

제22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4. 9. 10.(화) 10:00

5 분 자 유 발 언

(울산시 시내버스 노선 개편,
시민들의 편리가 최우선입니다.)



울 산 광 역 시 북 구 의 회

(강 진 희 의 원)

- 울산시 시내버스 노선 개편,
시민들의 편리가 최우선입니다 -

존경하는 22만 북구 주민 여러분!

김상태 의장님과 조문경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박천동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동, 효문, 양정, 염포동을 지역구로 둔
진보당 강진희 의원입니다.

울산시는 광역시 승격 이후 현행 노선의 60%를
바꾸는 대대적인 버스노선 개편을 추진 중입니다.
지난해 11월 초안 발표 후 5개 구·군을 순회하며
주민설명회를 개최했고, 주민 의견을 반영한
수정안을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명촌 차고지 준공 지연으로 시행이 12월로
미뤄졌고, 울산시의 껌껌이 행정으로 시민들은
자신들이 애용하던 노선의 폐지 여부나 환승 필요성을
알지 못한 채 최종안 발표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개편 초안이 발표되고 나서
울산시 외곽에 있는 우리 북구를 비롯한
동구, 울주군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었습니다.
왜냐하면 개편안이 효율성 개선에만 초점을 맞춘
나머지 외곽지역 주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편리성을
떨어뜨리는 안이었기 때문입니다.

대중교통은 울산시민의 발입니다.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내가 타는 버스를 오래
기다리지 않고 내가 원하는 도착지에 빨리 가는 것입니다.

울산시는 시내버스 이용 빅데이터를 활용해
버스 개편을 했다고 하지만, 노선이 아예 없거나
불편해 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시민들의 요구는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못합니다.

1,000억 원 이상의 막대한 세금으로 버스회사를
보전하는 이유는 교통이 불편한 곳에도 버스를
운행하는 등 시민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울산시 시내버스 노선 개편 홍보영상에 따른
개편안을 요약하면

첫째, 노선이 겹치거나 너무 긴 장거리 노선,
굴곡이 심한 불합리한 노선의 통합·단축

둘째, 버스가 한꺼번에 들어오는 몰림 현상을
없애기 위한 정시 운행과 배차간격 조정

셋째, 버스 이용객이 많은 남구, 중구지역에
도심 순환노선이 3개 신설

넷째, 외곽과 도시를 30분 만에 이용할 수 있는
직행 좌석버스 확대 운영 등입니다.

홍보영상만 보면 더욱 편리하게 바뀌는구나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합니다.

울산시는 이번 개편의 목적이

‘한정된 버스 자원의 효율적 배분으로 시민에게
사랑받는 대중교통 역할 다하기’라고 하지만,
대중교통 문제는 효율성만이 아닌 복지의 관점과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여 자가용 수요를 줄이는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울산시의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이 두 가지 관점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의 2023년 보고서에 따르면
울산시의 버스 배차간격은 31분으로
특·광역시 중 최장이며, 노선체계 만족도는
수도권 및 광역시 중 최하위입니다.

울산시 시내버스 수송 분담률은 2020년 기준 11.6%로
광역자치단체 중 최하위 수준을 기록했고, 시내버스 이용
승객 또한 2019년 27만 명에서 2023년 21만 6천 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시민이 원하는 노선체계로 개편될 때만 이용객과
수송 분담률의 증가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북구 주민들 중 버스 이용자는 주로
학생, 청년, 여성과 노인 등 교통약자들입니다.
노선 개편으로 폐지되는 버스 대신 환승을 하거나
좌석버스를 이용하라고 하는데 교통약자들에게는
너무나 불편하고 더구나 왕복 5,000원이 드는
좌석버스 비용은 매우 큰 부담이 될 것입니다.

모든 시민이 편리하게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환승 체계를 구축하고 교통약자에 대한 대책이
제대로 수립되어야 합니다.

울산시는 최종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버스 업계의
의견만 청취했을 뿐, 정작 대중교통 이용자인
울산시민들에게는 세부적인 개편안에 대해
주민설명회는커녕 공개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대중교통이 획기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광고만 하지 말고, 12월 시행을 앞두고 시민들에게
세부적인 개편안에 대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주민 의견을 다시 한번 수렴하여 가능하면
많은 시민들이 호응하는 최종안을 도출해야 합니다.

특히, 북구, 동구, 울주군 등 외곽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경제성을 넘어 주민들의 대중교통
이동성 향상과 편의성, 공공성 강화,
그리고 지역균형발전과 교통약자에 대한 대책을
잘 담은 최종 개편안으로 수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북구도 최종 개편안이 발표되기 전에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정확히 파악하여 울산시에
적극적으로 의견 제시를 하여 북구 주민들이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